

노인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Review of Elder Abuse

효성여자 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시간강사 한 동 희

교 수 김 정 옥

Dept. of Home Management, Hyosung Women's Univ.

Instructor : Han, Dong Hee

Professor : Kim, Jung Ok

〈목 차〉

I. 서 문	IV. 노인 학대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례
II. 노인학대의 개념	V. 결론 및 제언
III. 노인학대의 이론적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This paper reports about possibility of the elder abuse as a third vulnerable population among family violence in Korea. Although the study of against the elderly has not been reported in our society, the need for information about the nature of elder abuse is clear with social change.

There will be profound changes in our culture which in recent decades has been largely dominated in our family.

This paper will be explained some theoretical perspectives; Social learning theory, Symbolic interaction theory, Exchange theory and factor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elder abuse; 1)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abuser and the abused 2)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user and the elderly person 3) situational factors that increase the likelihood of abuse 4) socio-cultural factors that impinge on the use of violence. According to them, the patterns and other predictions of elder abuse will be pointed.

I. 서론

세계적으로 노인의 인구 비율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또한 노령 인구의 비율이 90년에 7.6%(60세 이상)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선진국형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통계청, 1993). 그러나 노인의 수명 연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로 치달고 있는 현실에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 경제적 문제, 노쇠하여 가는 건강 문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탈되어 가는 소외 문제 등 여러 복합된 문제가 노인을 둘러싸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여의치 못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모든 어려움이 가족의 부담으로 남게되며 이들을 보살피야 하는 성인자녀와의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게 된다. 자녀세대에 대한 이러한 부담감의 연속은 가족 전체의 감동을 낳고, 부양 책임과 여러가지 복합된 역할에 대한 가중된 스트레스의 대처방안이 모색되지 않을 경우 자녀세대에게는 정신 건강의 악화, 상호세대 관계의 악화로 가족의 역동성을 낮게 되며, 노인 역시 분의 아니게 이러한 현상의 가해자가 되어 노인이기때문에 받아야 하는 잠재적 학대의 희생자가 될 우려가 크다.

연령이나 생활장면에 관계없이, 인간관계에 있어 의존이 강한 사람은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Henton 등, 1984). 현대 사회에서 노인은 가족의 크기 및 기능의 축소, 가부장권의 약화, 가족역할의 상충 등의 현상이 일어나 가족성원의 소속감과 동질감이 약화되고 있는 변동속에서 신체적 능력의 저하, 소득능력의 상실 등의 의존적 입장을 여전히 가족에게 전달시켜 가족위기를 발생하게 하며 또한 충족될 수 없는 욕구처리등은 부모-자녀관계에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Steinmetz(1978)은 1980년대에는 미국사회에 있어 학대로 희생되는 연령층이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노부모가 될 것이며 노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는 자녀에 의해서 노인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지적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학대받는 노인이 한 해에 2백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10년전 추정치

의 2배로 증가한 것이다(사회복지신문 92.3.30). 또한 미국에서는 43개주에서 노인 학대 방지법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부모 자녀세대의 관계가 이전과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의 비현실성은 한국적 상황에서 노인 문제를 특별히 심각하게 만들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을 학대하는 매카니즘이 자녀 세대에 의해서 저질러 질 것이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자녀 학대, 아내 학대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은폐되어 왔던 것처럼 노인학대 역시 가정내에서 들추어 내기란 힘든 부분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어도 필요한 시설이나 머물 곳을 제공하는 데 따른 어려움, 이미 생이 끝나가는 시점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가정내의 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노인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의 경우 자녀로 부터 신체적 학대 행위로 고통 받는 노인이 4~10%로 조사되었다(Gelles and Cornell, 1985).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학대... 「버림받는 부모」 많다”는 지적(매일신문, 94.5.2)으로서 「활순노모 홍신소 시켜 유기, 사망」 「병없는 노부모 강제 입원시켜놓고 놀라다녀」 「재산불만 형제가 아버지 구타」 등의 내용이 신문지상을 장식한 존속 살인 폭행 유기 방치 등 노인 학대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학문적인 이론의 병행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폭력의 한 형태로서 거의 취급하지 않았던 노인학대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시행하여 새롭게 등장한 제 3의 취약인구인 노인의 가정내 학대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고, 가까운 미래에 사회문제가 될 노인 학대의 사전 예방과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에 공헌하고자 한다.

II.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에 관한 문헌조사나 선행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으므로 미국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정의하도록 하겠다.

노인학대란 비교적 새로운 용어로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합의된 정의가 없고 문헌에서는 아내학대, 자녀학대와 같은 차원에서 노인학대(elder-abuse, elder mistreatment) 노인방치(elder-neglect)등으로 사용된다. 노인학대를 정의하는데 있어 주된 문제는 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학대로 간주할 수 있으나(Henton 등, 1984)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다른 차원의 행위에서 기인된 노인 학대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1) 언어, 정서적 혹은 심리적 상해 2) 인간의 신체적 정서적 복지를 무시하는 행위 3) 노인의 재산이나 자원을 잘못 오용하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Hickey & Douglass, 1981; Katz, 1978-80; Kimsey, Tarbox & Bragg, 1981; Lau & Kosberg, 1979; Rath bone-McCuan, 1980; Steinmetz, 1981).

학대를 정의할 때 신체적 혹은 비 신체적 학대행위의 심각도가 또한 논의되어야 하는데 노인에 대한 공공연한 신체적 폭력, 혹은 손으로 치고 미는 행위는 노인이 허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뼈를 부러지게 하거나 심각한 타박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학대의 가장 심각한 형태가 될 수 있다(Henton 등, 1984). 그러나 더욱 포착하기 어려운 것은 비 신체적 학대 즉 심리적 학대나 무시하는 행위는 어떠한 미약한 경우에도 신체적 폭력의 영향보다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Henton 등, 1984). Douglass(1983)는 노인 학대를 수동적 방치, 능동적 방치, 언어나 정서적 학대, 신체학대로 나누고 있으며 Allen(1993) 등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심리적 학대로 나누었다. Henton(1984)등은 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경제적 학대 등을 포함한다고 했으며 기본적 유형에 따라 방치와 학대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Steinmetz(1988)는 노인학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수발자와 노인의 CMT(Control Maintenance Techniques) 척도를 이용하여 노인학대 목록을 만들었다.

이상의 정의들이 노인의 기본적 인간의 권리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잠재적으로 학대행위로 정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대에 대한 정확한 측정

과 공식적 보고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노인학대의 정의에 있어 명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학대하는 사람의 의도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내려야 하므로 정의를 내리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를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노인과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 정서적 혹은 심리적 상해와 인간의 신체적 정서적 복지를 무시하는 행위, 그리고 자산에 대한 오용 등으로 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III. 노인학대의 이론적 고찰

1. 노인 학대에 관한 이론

노인 학대에 관한 연구가 비록 탐색적인 단계에 있으나 연구를 뒷받침하는 여러 이론들이 노인학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아내 폭력에서 설명되는 이론과 마찬가지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사회적 상황이론(Social situation theory)등이 Bahr(1989)에 의해 설명되었다. Steinmetz(1988)의 연구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 교환이론(Exchange theory), 역할이론(Role theory)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교환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대다수의 사회 과학자들은 폭력과 공격성이 본능이라기 보다는 학습되어진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Bandura는 행위와 그 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위의 상황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견지에서 인간의 행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학습 바탕은 원래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폭력행위를 하나의 학습된 현상으로 설명한다. 즉 개인은 다른 사람의 폭력행위를 관찰,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공격 행동의 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공격행위에 대한 금지해제(disinhibition)를 일으켜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이 없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정옥, 1987).

노인을 학대하는 자녀와 배우자는 학대적인 행위를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방위 가족에서 학습하였다는 것이다(Baha, 1989). 즉 어린 시절에 학대 경험이 있는지 혹은 그들의 부모가 학대하는 광경을 본 경험이 있는 경향(Gavford, 1975)은 비록 노인 학대의 경우에 이러한 경험적 증거를 보이는 연구는 많이 없으나, 폭력 전이(Cycle-of-violence)가 노인 학대에 유용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athbone-McCuan, 1980; Steinmetz, 1981). Douglass(1983)는 방치와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학대를 목격하거나 받아온 아동이 학대하는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Kimsey(1981) 등은 가족의 전후관계속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성인 자녀들이 현재 그들의 부모에 대하여 유사한 형태의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신체적 힘의 사용이 있었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부모가 힘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자녀에게 가르친 결과로 노부모에게 신체적 혹은 언어적 폭력을 보인다는 것이다(Henton 등, 1984). 이처럼 가족 폭력은 생활주기를 통해서 가족의 상호작용형태에서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2)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

가족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중의 하나인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인간의 주체적 사고 능력에 주목하면서 Mead에 의해 제창되고 Blumer 등이 계승, 발전시킨 이론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자신에 대한 의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나름대로 상황을 규정한 후 자신과의 내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반응 양식을 결정하게 된다(박재홍, 1991). 즉 개인의 처해진 한정된 상황, 자아개념,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수행할 수가 있다(Bahr, 1989). Steinmetz(1988)는 노인 학대의 연구에서 이 이론을 적용하였다. 노인과 그들을 수발하는 자녀사이의 태도, 행위,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모든 수발자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며 수발 수준이 자동적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가족 폭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중요하며 실제적으로 이를 객관적이고 독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Steinmetz, 1977; Steinmetz, 1978).

상징에 대한 의미는 소유하고 있는 자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자원이론(Resource theory)에 따라 의사 결정과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사회/정서적 자원은 스트레스, 부담감, 갈등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물질적, 사회/정서적 자원은 노인을 수발하는 성인 자녀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가족 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것을 예측한 자원이론을 사용한 연구(Gelles & Straus, 1979)와 같은 맥락에서 수발을 제공하는데 있어 성인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와 폭력이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교환이론(Exchange theory)

사회적 교환이론은 행태주의 심리학과 공리주의 경제학 기능주의 인류학 등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Homans, Blau, Emerson 등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이다. 이 이론적 시각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행위자간에 가치있는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을 주고 받는 교환 과정으로 이해된다. 어느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면 후자 역시 그에 해당하는 보답을 전자에게 해야 한다는 호혜성(reciprocity)의 원리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반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호혜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위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재홍, 1991).

사람들은 비용을 넘는 보상의 순이익을 얻으려 애쓰며, 이익이 있음직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항상 작은 불이익의 행동을 선택한다. 즉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진 행동은 잠재적 보상에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부모를 수발하는 행동에는 보상의 잠재적 원천이 다수 깔려 있다(Walker 등, 1992). 예를 들어 “노부모를 모시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나의

어머니이니까” “나의 시부모이니까” 라는 언급에서 재정적, 사회적/정서적, 육체적 부담은 과중하게 부담되는 비용이지만, 충분한 지식의 도리에 대한 보상이 함께 하는 것이다.

Walker(1992) 등은 딸과 어머니사이의 수발관계를 교환이론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는데 그는 수발하는데 생기는 비용으로 걱정, 긴장, 압도 당하는 느낌, 유감, 감정적 소모, 초조, 무력감, 좌절, 죄의식,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의 쇠퇴를 지켜봄으로써 오는 근심 같은 감정적 비용으로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재정적 비용, 시간의 제한에 대한 비용을 지적하고 있다. 수발자의 대가로서는 수발자가 노화 과정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수발을 통해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자녀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것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환이론에 따라 노인과 수발자의 관계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이룰 수 있다. 미묘한 상황에 따라 개인적 교환 즉 프라이버시, 여가, 노인을 돌보는 인쇄, 의무감, 재정적 비용이 수발하는 결과와 더불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Steinmetz, 1988). 따라서 대가의 모색없이 비용이 수발자에게 계속 증가되는 전통적 가족주의의 고수는 노인과 성인 자녀 세대간의 관계에 큰 위기를 낳게 할 것이다.

2. 노인학대에 관련된 요인

노인 학대에 관한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학대 현상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인 학대가 발생하기까지는 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영여있음을 알 수 있다. 몇몇 연구들이 여러 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만 Henton(1984) 등이 분류한 1) 학대자와 비학대자의 인성적 성격에 대한 개인적 요인 2) 학대자와 노인사이의 관계의 상호 관계적 요인 3) 학대를 증가시키는 상황적 요인 4) 폭력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개인적 요인(Personal factors)

개인적 수준의 분석에서 학대자와 희생자는 노인

학대를 증가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학대자의 인성적 성격을 먼저 살펴보면 Hickey와 Douglass(1981)은 폭력행위와 관련된 기본적 요소 중의 하나가 노인의 의존성에 대처해야 하는 부양자로서의 무능력을 지적하였다. 개인간의 능력 수준은 노인의 의존성에 대한 대처를 위해 수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다. Straus(1973)는 많은 학대자들은 인간 관계에 있어 학대적 행위를 보이는 특정한 형태의 성격 즉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자들은 배우자 학대에 있어서 비학대자보다도 단호한 성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Rosenbaum & O'Leary, 1981). Allen 등(1993)은 갈등의 연속, 분개의 누적, 비난, 스트레스 증가, 걱정, 소심, 적의, 혼란, 신체적 장애, 피로, 공격적/방어적 행동, 집안일에서 우선해야 할 일의 방해, 음식, 약 등의 거부, 경제적 빈곤, 죽음에 대한 바람, 건강에 대한 불만, 즐거움이 없는 생활, 의료적 수발 등이 학대를 일으킬 가능성의 단서라고 그의 임상적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학대자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손상, 심리적 고통, 알콜 중독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다(Rathbone-McCuan, 1980). 노인을 수발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 학대하는 수발자 가운데 거의 85%가 여자이며 딸, 손녀, 자매들로 나타났다.(New York Subcommittee on Human service, 1980; Pedrick-Cornell, Gelles, 1982; Steinmetz, 1981)

학대받는 노인의 인격적 특성으로서 몇가지 성격이 지적되었다. Henton 등(1984)은 학대받는 노인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개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특징 중의 하나가 생활 장면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조건이 되는 주된 요소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들 수 있다. 이는 자녀 학대에서 과거에 지적된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즉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대부분 학대받는 아동으로 보고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다.(Pedrick-Cornell & Gelles, 1982) 노인 학대 분야의 연구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부터 고통받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보다 학대받을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Block and Sinnott, 1979 ; Lau & Kosberg, 1979 ; New York Subcommittee on Human Services, 1980 ; Rathbone-McCuan, 1980 ; Steinmetz, 1978 ; Henton 등, 1984) 질병이나 장애는 정체감을 잃고 무용함을 느끼게 하며 학대에 대하여 특히 취약한 노인을 만들어 더욱더 의존성을 낳게 한다. 이러한 의존성에 대하여 수발자들은 아이들을 다루는 것처럼 노인의 무력함에 대하여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학대 행위를 조사한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희생되는 노인은 주로 여성이며 65세 이상의 연령에 있으며 70대 중반이 다수이다.(Pedrick-Cornell & Gelles, 1982 ; Rathbone-McCuan, 1980 ; Steinmetz, 1981) 또한 많은 희생자들이 수발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자녀가 그 역할을 주로 맡고 있었다(Rathbone-McCuan, 1980 ; Steinmetz, 1981). 학대 받는 노인의 성격은 고집이 세고, 말다툼을 좋아하고 통제하기 어렵거나 노화로 인한 사리 판단력이 부족하고,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아주 소수지만 수발자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격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Kinsey 등, 1981 ; Renvoize, 1978).

2) 상호 관계적 요인(Interspersonal factors)

수발자와 노인 사이의 개인적 관계의 특징으로 구성된 여러가지 요소들은 노인 학대의 원인으로 제시된다. 부모-자녀 관계는 공유된 경험과 이미 수년간의 축적에 의해 형성되어 진다 (Moss, Moss Mole, 1985).

부모-자녀세대의 상호적 어려움들은 삶이 진행되는 것 속에서 계속되며 (Hess & Waring, 1978) 부모-자녀들은 또한 함께 늙어가면서 직면되는 상황에 의해 관계가 악화되어지기도 한다. Horowitz는 수발하는 자녀와 노인 상호관계는 과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경험에 따라서 수발자들이 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지적하였다. 즉 오랫동안 거부, 따돌림, 혹은 상호 갈등이 있었다면 성인 자녀가 도움을 제공하거나 노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

으려 한다는 것이다(Hyong-sil Lee, 1991). 때때로 폭력은 과거의 풀리지 않았던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의 흔적이 계속 될 수 있다(Hickey & Douglass, 1981 ; Steinmetz, 1981). Rapoport가 지적한 것처럼 수발을 받고 있는 노인과 수발자사이에 생기는 상호 스트레스가 잘 조절되었다면 상호관계는 성숙되고 발전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잘 대처되지 않았다면 과거의 심리적 갈등이 폭발되거나 새로운 갈등에 대한 긴장이 표출되게 된다 (Hyong-Sil Lee, 1991). Renvoize(1978)는 노부모와 가족 성원간의 힘의 갈등이 학대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여자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딸 혹은 며느리는 가사일, 양육 방식 등에 있어 노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이 힘의 견제가 어떤 수발자들에게는 학대적 행위를 나타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Douglass(1980)은 1979년에 미시간주 5개 지역의 의사와 전문가들에게 개인 면접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노인과 수발자사이의 상호관계에 있어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① 의존하는 노인을 부양하는데 부적절한 경제 사정(재정 문제)
- ②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수발자 자신이 몸이 불편한 경우
- ③ 노부모와 수발자 모두 알콜 중독자인 경우
- ④ 적절하지 못한 주거문제
- ⑤ 노부모와 성인 자녀관계가 적개심에 차 있는 경우
- ⑥ 노부모를 집에서 부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천이 없거나 그러한 정보가 없는 경우
- ⑦ 부양하는 사람쪽이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경우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3) 상황적 요인(Situational factors)

노인 학대의 사례에 대해서는 앞서 개인적 요소, 상호관계적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적 요소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가장 폭넓게 논의되는 상황적 요소로는 노인과 합가하였을때 나타나는 수발자의 증가 되는 스트레스이다. 이미 구축된 가족체계에 새로운

구성원의 출현은 충격이 될 수 있다. 특별히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나 노인이 계속 수발을 요구하게 되는 심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있을 때는 더욱 심하게 된다(Henton, 1982). 특히 수발자의 다양한 역할을 포함하게 된 경우는 그들의 개인적 시간과 공간을 통해 더욱더 많은 조절을 유지하는 동안에 가사일, 수발 양육 등에 직면되는 전체적 작업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Stoller & Pugliesi, 1981; Huong-sil Lee, 1991). 수발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더하여 질 가능성이 크다(Katz, 1979-80; Steinmetz, 1981).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경제적 심리적 긴장에 관련되어 있을 때가 바로 그러한 기간이다. Steinmetz(1978)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수발자의 자녀들이 진수하는 시기와 그들의 개인적 충족과 경력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할 때를 지적하였다. 자유로운 활동의 증가와 새로운 긍정적 삶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생활주기의 후반에 노부모가 개입될 때 수발이라는 부가된 스트레스는 학대로 나타나기가 쉽게 될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공격적인 성격이나 수발자와 노인의 상호관계의 처리기술이 부족한 수발자들은 이와같이 지속되는 책임감을 다루는 한 방식으로 학대와 같은 행위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Henton, 1984).

4) 사회 문화적 요인(Socio-cultural factors)

수발자와 노인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회-문화적 수준에 따른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다(Hickey & Douglass, 1981; Katz, 1979-80). 첫째로 노인 차별주의(Ageism)이다. 나이 때문에 단순히 노인을 차별하는 것이 노인 차별주의(Ageism)이다. 인종 차별주의(Racism)나 성 차별주의(Sexism)와 같이 사회문제의 이슈가 되는 단어에 주로 -ism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Butler, 1975) 처럼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때문에 통속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노인 차별주의는 이처럼 노인의 부정적인 태도로 설명되는 선례,

선입감, 전형적 사고로 언급되는 것이다(Henton 등, 1984). Troll(1976) 등은 미국 사회는 이러한 노인 차별주의로 노인이 고통받는다 고 지적하고 노인을 “노쇠하고, 외롭고, 쓸모없는 신체, 변변치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노인을 이러한 전형적인 사고에 따라 대하게 되면 노인 역시 그들 자신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자기 가치에 대한 부정적 느낌은 수발자와 성인자녀들에게 높은 가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노인과의 관계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폭력의 경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Henton 등, 1984). 두번째로 가족내의 여러가지 구조적 변화이다. 한가지 구조적 변화는 가족의 수가 적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즉 수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기 쉽다(Katz, 1979-80). Treas(1977)는 노인 인구는 증가하였지만 출생률의 저하로 노인을 부양할 가족의 수는 적어졌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찍 결혼한 여성이 있다하더라도 자녀를 늦게 가지거나 자녀수를 제한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이혼률이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주로 여자)이 독신으로 지낸다. 이들은 자주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럴때 노부모에 대한 책임에 부가되는 스트레스는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Henton, 1984). 세번째로 인구의 노령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21C가 되면 전체 인구의 20%가 60세를 넘는 인구로 구성되며(U.S Bureau of the Census, 1980) 우리나라는 2020년경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13%에 달할 것을 전망한다(박재홍, 1991). 이와 같은 추세는 의존하는 노인과 자녀수의 비로서도 설명된다. 노인의 의존률이 미국의 경우 1900년대 100명당 13명, 1975년 100명당 29명, 2030년대에는 100명당 44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10.3%, 1980년 11.5%로 노년 부양비는 계속 증가추세이다(통계청, 1993). 증가하는 노인들의 요구와 기대는 더욱 강렬해 질 것이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높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대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이러한 노인 인구에 대한 개인적 들

봄의 수준은 더 높게 요구되어 질 것이며, 그 기간도 더욱더 연장될 것이다(Douglass, 1984). 더우기의 의료적 시설체계가 거동이 불편하고 의존성이 높은 노인들을 수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현실화 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앞으로 계속될 또 다른 중요한 역동적 변인들은 남·녀모두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므로 노부모의 병환이나 거동 불편함을 돌보았던 성인 자녀들에 대한 전통적 유용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출산률저하(가족 규모 축소), 핵가족화, 직장 여성의 증가추세 등으로 인하여 노인을 직접 모실 수 있는 가정내 잠재적 노인 부양 인력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박재홍, 1991).

노인 학대 문제는 자녀 학대, 아내 학대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는 상황과는 달리 부양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잠재적 취약점의 연속 과정이 반복될 것이므로 시급히 여러 차원에서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IV. 노인 학대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례

노인 학대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내 연구에서는 거의 보고된바가 없으므로 미국의 여러 경험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 연구는 신문기사에서 언급된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 학대라는 제목으로 연구해온 역사는 거의 1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Croin과 Allen(1982)은 Steinmetz의 "Overlooked aspects of domestic violence"에서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보인 1978년 미국 국회 청문회에서 부터 그 근원을 찾고 있다. 노인 학대에 관한 관심이 이 청문회가 있고 나서 국가적 관심을 일으켰다. 즉 New York Times지의 기사화와 여러 방송국에서 노인학대에 관한 언급이 시도되었다.

첫번째의 학술적 기사는 Steinmetz의 "Battered Parents"가 Society의 1978년 7/8호에서 언급된 것으로 Delaware Public Guardian's Office로 부터 사례를 뽑아 이론적으로 다룬 것이다(Lau & Kosberg, 1979). 1979년 6월, 1980년 5월 두 차례의 국회 청문

회는 노인 학대에 관한 관심을 더 불러 일으켰으며 Administration on Aging에서 연구 지원금이 지원되었다(O'malley 등, 1979; Steinmetz, 1988).

노인 학대에 관한 연구로서 1979년에 의료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 전문가를 보조하는 사람들 1044명을 통하여 18개월동안 조사한 사례가 있었다. 이 연구의 보고에 따르면 학대의 경험이 있는 사례중 70%가 두차례의 학대 행위가 있었고, 75%는 학대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중 80% 이상이 가족이었다. 이러한 가족의 3/4은 알콜 중독자이며 약물 사용자였고 의료적 문제, 장기간 동안의 경제적 문제와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노인 희생자는 이러한 학대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부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Steinmetz, 1988).

Blocker Sinnott은 조사자 중 단지 13%만, 노인학대에 관해 알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중 88%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이 응답한 노인의 학대 경우는 장애수준이 극단적으로 높은 노인들이었다. 신체적 손상이 94%, 스스로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62%,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54%, 정신적 손상이 47%를 보였고 이들 노인의 64%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Steinmetz, 1988).

Douglass 등(1981)은 228명의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다양한 전문인(성직자, 경찰, 변호사, 의사, 사회복지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종사자등)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그들 중 17%가 노인의 신체적 학대, 44%가 언어나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기관을 통해 조사한 것(Agency data)으로 Langdon(1980)은 Massachusetts : Family Services Association of Greater Lawrence에 의해 3달 동안 자료를 수집한 조사에서 50사례 중 8건은 가족에 의한 학대, 4건은 친척관계가 아닌 사람에 의한 신체적 학대, 3건은 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수발자에 의한 방치 등 이었고, 21건은 노인들이 상해를 경험하였거나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되었다.

Kosberg(1979)는 1년간 수집된 39건의 사례에서 학대 받는 노인의 사례중 3/4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해로 고통받았다고 지적하였다.

Sengstosk와 그 동료(1984)는 1981년 Detroit에 있는 노인 학대 희생자들을 조사하였다. 노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가족들의 반수가 10가지 이상의 가족 문제를 지니고 있었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가해자였다. 이들의 반수 이상은 성인 자녀들이었고 아들인 경우는 신체적 폭력, 딸의 경우는 방치하는 태도가 지적되었다.

최근 가장 포괄적인 조사로는 American Public Welfare Association과 Association of State Units on Aging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1983~1984년 동안 노인 학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노인 학대 사건은 60세 혹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기준으로 1000명당 1명의 비율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California주의 경우 1.9, Minnesota주의 경우 0.2, Mississippi주의 경우 0.9, Missouri주의 경우 8.0, Alask 주의 경우 1.6, Idaho주의 경우 8.5의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보여주었다(Steinmetz, 1988).

Liang과 Sengstock은 기관을 통한 우편 설문지와 인터뷰를 복합하여 20명의 학대 받는 노인과 50명의 그렇지 않은 노인을 인터뷰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대받는 노인의 30%가 80세가 넘었고, 3/4이 여성 노인이었다. 자녀에게 학대 받고 있는 경우가 반수가 넘었으며 딸(23%)보다 아들(26%)의 경우가 더 높았다. 경제적 상황으로 80%가 만달러 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있었다. 학대의 종류도 다양하였다. 즉 82%는 심리적 학대를 경험하였고, 55%는 경제적 학대, 43%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다. 이 연구에서 신체적 학대 수준이 높은 것은 입증된 학대 사례만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Steinmetz, 1988)

Pillemer과 Finkelhor(1987)은 65세 이상 노인 202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2%가 학대나 방치의 경험이 있었고, 학대받는 노인들은 동거 형태의 경우가 3배 이상 높았다. 방치의 경우는 혼자 살거나 지지체계로부터 고립된 경우였다. 노인의 58%는 배우자로 부터의 학대였으며, 24%는 성인자녀로 부터의 학대였다.

Bergman 등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한 노인인 대부분 학대 받기 쉬우며 연령이 높을수록 즉 80세

이상 36%, 75~80세가 19%, 70~74세가 17%, 65~69세가 18%, 60~65세가 9%를 보였다(Sussman 등, 1986).

Steinmetz와 Amsden(1983)은 부담감과 의존수준,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언어적, 신체적 학대의 경우 노인과 수발자 그리고 정신적 건강 의존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신체적 폭력은 일신상의 수발(personal care), 이동성, 사회-정서적 의존성과 관련이 있었다. 수발자의 작업량의 수준은 학대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일이 스트레스로 인식된 경우는 학대의 경우가 높았다. 학대에 가장 강한 관련성은 노인의 의존성이었고, 또한 노인이 수발자를 통제하기위해 강한 기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학대와 강한 관련성이 있었다.

노인의 폭력은 의존성의 수준과 관련이 높으며 수발자의 폭력은 이러한 의존된 작업을 수행하는 결과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따라 폭력 수준이 높아짐을 지적하였다.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로는 10대 자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최근 가족 성원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 알콜 중독 환자, 다른 가족과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문제, 부모 모두가 직장이 있는 경우, 단신 부모, 경제적 문제 등이 지적 되었다(Sussman 등, 1986).

집안일, 일신상의 수발, 건강, 재정, 이동성,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 등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에게 수발자들은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를 수발하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학대 점수가 21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미국사회에서의 가정내에서의 노인학대는 의존적인 노인과 이를 수발하여야 하는 성인자녀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한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을 몇가지 기사와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다.

<1992년 4월 15일 부산 매일신문>

부산 동구청 조사에서 부산 지역의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중 절반가까이가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불화나 자식의 학대, 또는 고부간의 갈등 등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와 어렵게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5월 21일 부산일보>

핵가족화의 가속으로 소외감 생활고들을 비판한 노인들의 자살이 한해 평균 20여명(65세 이상 노인)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살 이유로는 오랜 질병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경우, 거동 불편과 아파트 생활의 소외감, 가난한 자식들에게 신세지는 것이 괴롭다는 것 등이었다.

<1992년 3월 29일 중앙 일보>

노부모 봉양 기피풍조로 인한 외로운 노인들의 잇단 자살을 보도하여 메말라가는 가족 관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92년 2월 7일 동아 일보 >

노모의 부양문제로 다름을 한 형제 살인 사건이 서울에 있었다.

<1993년 4월 15일 연예 영화 신문>

중풍을 앓는 노인이 이불에 싸인채 거리에 버려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놓고 자식들이 불래 이사를 가버리는 등 현대판 고려장이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992년 6월 5일 동아 일보 >

병 없는 노부모를 강제 입원시켜 휴일, 여가를 지내거나 반신 불구가 된 할아버지를 가족들이 문병은 오지 않고 입원만 시킨 채 입원비와 간병료를 온라인으로만 송금해 이 할아버지의 임종을 간병인 혼자서 지켜본 사례도 있었다.

이상의 사례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가족 문화의 비인간화, 불모화 현상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자랑이던 사랑과 존경을 토대로 한 가족간의 규범과 화목을 저해하고 있으며 가정 폭력의 취약 인구인 아동, 아내 학대에 이은 또 하나의 새로운 취약 인구로서 노인이 등장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노인학대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미국의 노인학대의 경험적 연구의 근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선행연구와 신문기사를 통한 국내 노인학대의 실정을 살펴보고 노인학대와 관련된 더욱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 상호관계적 요인, 상황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다루어 보았다.

1980년 이후부터 서구 사회의 노인학대에 관한 사회적 연구와 새로운 써비스 개발의 시급함이 지적

되는 배경들로 부터 우리사회에서도 노인학대가 더 이상은 생소한 문제가 아님을 예측 할 수 있다. 그 배경으로 우리사회의 노인문제의 구조적 특수성을 살펴보면 첫째, 의식면에서 노인은 노후대책이없는 상태에서 자식에게 의존적이며 둘째, 가족형태면에서는 외형은 고령자의 높은 권한과 지위를 보장 받았던 직계적인 삼세대 가족이지만 실제로는 부부중심의 가족형태로서 노인은 가부장적 지위나 존경의 대상으로 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가고 있으며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의 경제적 정서적 사회 써비스에 대한 욕구를 국가와 사회가 그 기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전통적 의미에서의 경로효친만을 고양할 뿐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가 아직도 미비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한동희, 1990). 이러한 제요인들에 비추어 볼 때 무능력한 노인과 이러한 노인을 부양할 자원과 대처기술이 부족한 자녀세대 사이의 현저한 해결책이 없는 악순환은 노인학대라는 황폐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 특히 앞서 살펴 본 노인학대는 그 요소들이 복잡하게 엉켜져 있고 두세대 모두에게 관련된 스트레스 요소들을 분석하여 대안적 원천을 찾아야 더욱 본질적 노인학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노인학대의 정도와 성격을 실제 자료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후속연구에서는 노부모와 자녀세대에 일어날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함께 분석하고 이 결과 일어날수 있는 노인학대의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여 가족폭력의 또 하나의 잠재적 취약인구인 노인의 입장을 고찰하고 노인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1) 김정옥, 도시부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2) 동아일보, 1992.2.27
- 3) ———, 1992.6.5
- 4) 매일신문, 1992.5.2
- 5) 박재홍, "현대사회문제 : 노인문제", 사회문화연구

- 소(고형복), 1991, P.305-33
- 6) 부산 매일신문, 1992.4.15
 - 7) 부산일보, 1993.5.21.
 - 8) 사회복지신문, 1992.3.30
 - 9) 연예영화신문, 1993.4.15
 - 10) 중앙일보, 1992.3.29
 - 11) 통계청, 한국의 고령자 실태분석, 1993
 - 12) 한동희, 노인의 가정내 역할과 자녀와의 유대관계,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13) Alexis, J. Walker, Sally. S. K, Martin and Laural. Jones, The Benefits and Costs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for Daughters and Mothers,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s* 47(3), 1992, PP.130-139
 - 14) Bulter, RN, Why Survive?, Harper and Row, 1975
 - 15) Cronin, C. and A. Allen, The Uses of Research Sponsored by the Administration on Aging, Case Study No.5 : Maltreatment and Abuse of the Elderly, Washington, DC : Gerontological Research Institute, 1982
 - 16) Elizabeth, R. Neidhardt & Jo Ann Allen, *Family Therapy With the Elderly* : Sage, Publications, 1993
 - 17) Gayford, J., Wife battering : A Preliminary Survey of 100 Cases, *British Medical Journal* 1 : 195-197, 1975
 - 18) Gelles, R. J. and C. P. Cornell,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Beverly Hills, CA : Sage, 1985
 - 19) Gelles, R. J. and M. A. Straus,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 Toward a Theoretical in Tegrstion, in W. Burr, R. hill, F. I. Nye and I.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 Free Press, 1979
 - 20) Hess, B. B. & Waring, J. M, Changing Patterns of Aging, *Family Bonds in Late Life. The Family Coordinator* 27, 1978, PP.303-314
 - 21) Hickey, T. & Douglass, R. L. Mistreatment of the Elderly in the Domestic Setting : An Exploratory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1, 1981, PP.500-507
 - 22) Hyong-sil Lee "Family Caregiving Experiences with Well-functioning and Impaired Older Parents, Dissertation", Univ. of Georgia, 1991
 - 23) June Henton, Rodney Cate and Beth Emery, *The Dependent Elderly : Targets for Abuse*, William H, Quinn & George A, Hughston(eds.) *Inderpendent Aging : Family and Social Systems Perspectives : The dependent Elderly : Targets for Abuse*, 1984, PP.149-163
 - 24) Katz, K. D., Elder Abuse, *Journal of Family Law*, 18, 1979-80, PP.695-722
 - 25) Kimsey, L. R., Tarbox, A. R. & Bragg, D. F., The Caretakers and the Hidden Agenda. I. The Caretakers and the Categories of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9, 465., 1981
 - 26) Lau, Elizabeth and Jordan Kosberg, Abuse of the elderly by informal care providers, *Aging* 299: 1979, pp.10-15
 - 27) Marrin B, Sussman and Suzanne K. Steinmetz, *Family Violence : Past, Present, and Future.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lenum. Press, New York, 1986
 - 28) Moss, M. S., Moss, S. 2. & Moles, E.L., The Equ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ier Out-of-town Children, *The Gerontologist*, 25, 1985, PP.134-140
 - 29) Pillmermer, K. A. and D. Finkelhor, Domestic violence against the elderly, Presented at the Trird Conference on Family Violence, Durham, NH, May 28-June30, 1987
 - 30) Pedrick-Cornell, C. & Gelles, R. J., Elder abuse : The status of current Knowledge Family Relations, 31, 19823, PP.457-465
 - 31) Rathbone-McCuan, E., Elderly Victims of Family Violence and neglect. *Social Casework*, 61, 1990, PP.296-304
 - 32) Renvoize, J., *Web of Violence : A Study of Family Violence*. Boston : Routledge & Kegan Paul,

- 1978
- 33) Richard, L. Douglass, Domestic Neglect and Abuse of the Elderly :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Service Family Relations 32, 1983, PP. 395-402
- 34) Rosenbaum, A. & O'Leary, K. D., Marital violence : Characteristics of Abusive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1981, PP.63-71
- 35) Sengstock, Mary C. et al, Abuse elders : Victims or Villains or Circumstances?, Gerontologist 22: 217, 1984
- 36) Steinmetz, S. K., The Cycle of Violence: Assertive, Aggressive and Abusive Family Interaction New York : Praeger, 1977
- 37) ———, Elder Abuse, Aging, 1981, PP.6-10
- 38) ———, and Deborah J. Amsden, Dependent elders family stress and abuse, in Timothy Brubaker(e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Beverly Hills, CA : Sage, 1983, pp.173-192
- 39) Stephen J. Bahr, Family Interact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9
- 40) Straus, M. A., A General Systems Theory Approach to a Theory of Violence between Family members, Social Science Information, 12, 1973, PP.105-125
- 41) ———, Duty Bound Elder Abuse and Family Care. Sage Publications, 1988
- 42) Treas, Judith, Family Support Systema for the Aged, Gerontologist 17, 1977, PP.486-491
- 43) Troll, L. E. & Nowal, C, How Old Are You?, The Question of Age Bias in Counseling Adul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1), 1976, PP. 41-43
- 44) U. S. Bureau of the Census,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1980, P.25 No.870) Washington, D.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